

2012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B 형]

1	3	2	2	3	1	4	4	5	4
6	5	7	4	8	5	9	1	10	2
11	2	12	3	13	1	14	4	15	1
16	3	17	4	18	3	19	5	20	3
21	1	22	2	23	2	24	2	25	1
26	2	27	1	28	2	29	3	30	5
31	3	32	1	33	3	34	3	35	4
36	5	37	3	38	3	39	4	40	3
41	2	42	4	43	2	44	4	45	2

[화 법]

1. [출제의도] 협상의 전략 파악하기

탁구반 반장은 체육관을 1시간씩 사용하자는 농구반 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면서, 그 대신 탁구반이 먼저 체육관을 사용하겠다는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① 체육관 사용 제한이라는 문제 상황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으므로, 유사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탁구반 반장은 탁구반의 특성을 근거로 상대의 양보를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다. 상대의 감정에 호소하는 협상 전략은 사용하지 않았다. ④ 탁구반 반장은 농구반 반장의 말을 들은 후 농구반이 시합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므로, 상대방의 경기 일정을 파악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협상 참여자 모두는 협상의 시작 단계부터 해결 단계까지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협상 중단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 [출제의도] 협상 절차에 따른 협상 내용 이해하기

협상 참여자들은 체육관 사용 제한이라는 문제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주당 사용 일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이 협상 참여자들의 기본 입장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협상 참여자들이 체육관 사용 제한이라는 학교의 결정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협상 참여자들은 공평하게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개인 연습을 할 수 없는 탁구반의 사정을 농구반 반장이 수용하여 입장 차이를 좁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사용 시간을 나누되 탁구반이 먼저 사용하고 이때 농구반에게 일부 공간을 할애 주는 등 대안을 제구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발표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스마트폰 중독 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제도적 차원에서 밝히는 부분을 발표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② '노모포비아'는 '노 모바일 폰 포비아'의 준말로 스마트폰이 없으면 매우 불안해지고 정신적 공황을 겪게 되는 현상이라는 개념을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운동이나 독서 등 스마트폰을 대신할 취미를 갖기, 스마트폰 1일 사용 시간 정하기, 스마트폰 없는 요일 정하기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노모포비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 화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데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적절하다. ⑤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한 [자료1], [자료2]를 활용하여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 [출제의도] 대화에 나타난 의사소통 양상 파악하기

"엄마, 저 피곤해요. 영수 시키면 되잖아요?"라는 회사의 두 번째 대사, "제 생각에는 우리 집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칭찬 많이 많이 해 주세요."라는 회사의 여섯 번째 대사에서, 어른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있는 회사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엄마의 두 번째 대사 "우리 착한 딸이 오늘 기분이 별로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해 말하려는 배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누가 냉장고에서 반찬 좀 꺼내주면 좋겠네."라는 엄마의 첫 번째 대사에서 명령이나 요청의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 주려는 표현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엄마의 두 번째 대사 중, "내가 통명스럽게 말하니 엄마가 시운하다."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대신, 상대방의 말에서 느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처음에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달라는 엄마의 부탁을 거절하던 회사가 대화가 진행되면서 퇴근 후 엄마가 식사 준비하기 쉽지 않을 것임을 고려하여 일찍 와서 돕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대화가 진행되면서 상대방의 처지를 고려하는 태도로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5. [출제의도] 의사소통의 규칙 적용하기

아빠가 용돈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 회사의 네 번째 대사 @은 진후 대화 상황에 맞지 않는 발언이므로 관련성의 격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 ㉡, ㉢은 대화의 목적이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진후 대화 상황에 맞도록 말하고 있으므로 관련성의 격렬을 지켰다고 할 수 있다.

[작 문]

6. [출제의도] 글의 유형에 따른 글쓰기 전략 확인하기

수정 전 자기 소개서에 대한 조언으로 제시된 '모든 원의 한마디' 중, '자신이 지원하려는 학과와 자신의 장점을 연계해서 함께 서술하면 좋겠어.'는 수정 후 자기소개서에 반영되지 않았다.

7.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에 공공문화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애호 의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애호 의식이 부족함을 드러내는 설문 자료를 제시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에 공공문화시설의 부실한 운영의 원인과 개선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보내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문화 체험의 장이 제공되도록 하려는 글을 쓰는 목적이 드러나 있다. ② <보기>에 공공문화시설의 양적 확충과 주민들의 이용률에 대한 언급이 있으므로 이를 드러내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보기>에 공공문화시설의 부실한 운영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공공문화시설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제기된 공공문화시설의 부실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8.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나)에는 생계 수단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보기>의 자료에서 귀농을 증가시키기 위해 농업기술교육센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또한 '다문화화된 농촌 구성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이라는 글의 주제를 고려할 때, 이미 귀농한 사람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농사를 생계 수단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의 귀농을 증가시키기 위해 농업기술교육센터를 확충해야 함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1은 연령별 귀농 인구의 연도별 변화율, (가)-2는 농촌의 다문화 가정 인구의 증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이를 통해 농촌의 인구 구성이 다문화화되고 있음을 제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나)의 귀농하려는 이유 중에 '자연 속에서 누리는 건강한 생활'이 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농촌의 자연 환경이 귀농의 주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의 자연 환경을 보존할 필요성을 밝힌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다)에 귀농한 사람들이 보육 및 자녀 교육 여건 미비, 의료 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농촌 유입 인구를 위한 보육 및 자녀 교육, 의료 부문의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④ (가)-2에서 농촌의 다문화 가정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에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겪는 어려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늘어나는 농촌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언어 및 문화적 측면에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한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9.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친구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학급 일기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 과제를 완성하였으므로, 예상 독자에게 친숙한 경험을 제시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는 전략을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출제의도] 교차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합창 연습을 시작했다는 내용과 합창 연습 중 화음이 잘 맞지 않았다는 내용은 인과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을 '그래서'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취직'은 '어떤 일의 근본이 되는 목적이나 긴요한 뜻'을 의미하므로, 문맥 상 '결과'로 대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연주회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선생님의 성향은 위 글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합창곡을 연습한 주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우리는'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과 '이루어 낸다'가 서로 호응하지 않으므로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문 법]

11. [출제의도] 발음 규칙 탐구하기

'울은'은 [오른]으로, '싫어'는 [시러]로 발음됨을 통해 받침 'ㄹ' 뒤에 모음으로 시작될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ㅇ'이 발음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받침 'ㄹ' 뒤에 모음으로 시작될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ㅇ'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표준어 규정 적용하기

표준어 규정 제12항 다만 1의 규정에 의하면,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표기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부분을 뜻하는 말인 '위팔'은 거센소리 '표' 앞에 '위-'가 결합되므로 '위팔'로 적는 것이 표준어 규정에 따른 표기이다.

13. [출제의도] 문장 표현의 적절성 판단하기

‘선생님께서 아직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는 ‘도착’이라는 완료의 의미와 ‘~고 있지 않다’의 진행의 시간 표현이 상충되므로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로 고쳐 쓴 것은 적절하다(㉠). ‘축구경기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피동결사 ‘-이-’와 피동의 표현 ‘-어지다’가 동시에 사용된 이중피동의 문장이므로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축구 경기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쓴 것은 적절하다(㉡).

‘학생들이 소풍 장소에 아무도 오지 않은 경우’에는 ‘소풍 장소에 학생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로 표현해야 한다(㉢). ‘민수에 비해 영화가 게임을 더 좋아하는 경우’에는 ‘민수와 영화 둘 중에 영화가 게임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로 표현해야 한다(㉣).

14. [출제의도] 구어 담화의 특징 파악하기

군말이란 담화의 상황에서 ‘음’, ‘어’처럼 특별한 의미 없이 사용되는 군더더기 말을 의미하는데, 이 대화에서는 이러한 군말은 사용되지 않았다.
 ㉠ ‘조금 빠빠요, 요새.’, ‘다 왔네, 교무실에.’, ‘민지야 고마워, 잘 들어줘서.’와 같이 어순이 자유롭게 교체되고 있다. ㉡ ‘제가 들어 드릴까요?’에서는 목적어가, ‘요즘 어떻게 지내?’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 ‘(고개를 가로 컸는다.)’, ‘(밝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에서 볼 수 있듯이 표정과 몸짓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단어 형성법 이해하기

‘눈그늘’은 어근 ‘눈’과 어근 ‘그늘’이 결합한 합성어로 ㉠에 해당하고, ‘맛대결’은 접두사 ‘맛-’과 어근 ‘대결’이 결합한 파생어로 ㉡에 해당하며, ‘뽕시퐁’은 어근 ‘뽕시’와 접미사 ‘-퐁’이 붙어 이루어진 파생어로 ㉢에 해당한다.

16. [출제의도] 중세 국어 조사의 기능 파악하기

중세 국어에서 사용된 조사 ‘이며’는 현대 국어에서 ‘과로’ 쓴 것으로 볼 때, 앞말과 뒷말을 대등한 관계로 이어주는 기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술]

[17~18] <출전> 이주영, 『예술론 특강』

1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이 글의 2문단에 예술작품에서는 색채나 형태를 넘어서 있는 어떤 정신적인 것을 표현한 경우가 많으며, 이때 작가는 내용을 암시만 하는 정도로 색채나 형태와 같은 감각적 매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신적인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작가는 색채나 형태와 같은 감각적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4문단의 ‘초상화를 보고 초상화의 모델이 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이는 감각적 차원에서 둘 사이의 유사성을 지각한 것이다.’라고 한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문단의 ‘건축은 부분들 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비례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문단의 ‘예술 작품 중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감각으로 파악하기에 적합한 크기와 형식에서 벗어난 거대한 건축물이나 추상적인 작품도 있다.’라고 한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문단의 ‘한두 가지 단조로운 색으로 칠해진 거대한 추상화화에서 감각적 유사성을 찾지 못하더라도, 비감각적 차원에서 유사성을 지각함으로써 정신적 합일을 통한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이 글의 5문단에서 ‘비례의 아름다움을 지각하는 것은 단순히 감각적 차원을 넘어 비감각적 차원에서 합일을 이룰 때 가능해진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보기>의 건축물에서 종교적인 경이로움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암시하는 바를 감상자가 정신적으로 감지함으로써 합일의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 문]

[19~21] <출전> 강신주, 『철학 VS 철학』

19.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 글에서는 도와 개체의 관계를 바라보는 노자와 장자의 상이한 관점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인 ‘그릇’과 ‘등산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20. [출제의도] 핵심 개념 파악하기

이 글의 2문단에 ‘노자는 관계의 원리인 도를 개체인 그릇보다 존재론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도를 개체보다 우월한 것으로 간주한 사람은 장자가 아니라 노자이다.
 ㉠ 2문단에서 노자에게 있어서 도는 세상의 모든 개체들 간의 관계라고 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문단에서 도는 모든 개체에 선행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노자의 관점을 언급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문단에서 장자가 도는 개체들의 활동을 통해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문단의 도와 개체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장자는 노자와 차이를 보인다는 내용, 그리고 3문단에서 장자가 관계의 원리인 도는 개체들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노자의 도에 관한 관점을 부정했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출제의도] 관점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의 사람들은 이미 만들어진 길을 안전하다고 여기며, 절대적인 길로 인식하고 있다. 4문단에서 장자는 길은 사람들이 걸어 다녔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며, 도는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들 간의 관계에 의한 혼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사람들에게 장자는 ‘절대적인 길로 보이는 그 길 역시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것에 불과함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반응할 것이다.

[기 술]

[22~24] <출전> 『뉴턴, 2010.10.』

22. [출제의도] 내용 파악하기

이 글에서 복사 냉각에 필요한 내열 타일의 두께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3문단의 ‘S자로 선회하며 대기권으로 재돌입하여 비교적 약한 공력 가열을 장시간 받게 되는 우주 왕복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문단의 ‘어블레이션은 공력 가열에 의해 내열체가 열분해되는 현상을 이용한 방법이다. 즉 내열체가 분해될 때 열을 흡수함으로써 선체에서 열을 달아나게 하는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4문단의 ‘내열체에는 탄소섬유 등을 섞은 강화 플라스틱을 사용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문단의 ‘이 타일은 우주 왕복선이 대기권에 재돌입할 때 공력 가열을 받아 1,500℃의 고온이 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핵심 원리와 현상 이해하기

2문단의 ‘우주선이 초고속으로 대기 속을 날면, 우주선 앞면의 공기가 급격히 압축된다.’로 보아 ㉠이 고압이 되는 것은 ㉢ 때문이겠군.’이라고 한 진술은 적

절하지 않다.

24. [출제의도] 중심개념 비교하여 이해하기

3문단의 ‘S자로 선회하며 대기권으로 재돌입하여 비교적 약한 공력 가열을 장시간 받게 되는 우주 왕복선은 복사 냉각을 이용해 선체에서 열이 달아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된다.’와 4문단의 ‘내열 타일이 녹을 정도의 높은 공력 가열을 받는 경우에는 복사 냉각의 방법을 쓸 수 없다.’로 보아 ㉡는 ㉢에 비해 더 높은 온도의 공력 가열을 받을 때 사용되는 방법이다.’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독 서]

[25~26] <출전> 정약용,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25. [출제의도] 자료에 제시된 독서의 방법 파악하기

이 글에서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며 읽어온다.’는 내용은 이끌어낼 수 없다.
 ㉠ 1문단의 ‘많은 책 중에서 답 기르는 법에 관한 이론을 뽑아내어 차례로 정리하여’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 3문단의 ‘조(祖)’ 글자의 의미를 선생에게 묻는 예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 ㉢ 3문단의 ‘자서(字書)’에서 조(祖)라는 글자의 본뜻을 찾아보고’에서 이끌어 낼 수 있다. ㉣ 1문단의 ‘앞으로 많은 책 중에서 답 기르는 법에 관한 이론을 뽑아내어’와 3문단의 ‘조(祖)’라는 글자를 자서에서 찾아보고, 『통진(通典)’이나 『통지(通志)’, 『통고(通考)』 등의 책에서 조제(祖祭)의 예를 모아야 한다는 것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26. [출제의도] 글쓴이의 독서 태도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이 글에서 글쓴이는 마구잡이로 읽어 내리는 태도를 경계하고 어휘 수준까지 세밀하게 고찰하고 연구하여 완전히 이해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글쓴이가 <보기>의 ‘재원’에게 충고할 내용으로는 ‘책은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책에 담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가 적절하다.

[사 회]

[27~30] <출전> 박구용 외, 『공경과 정의 사회』

2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3문단에서 노인수당은 사회수당의 일종임을 알 수 있으며, ‘사회수당은 재산이나 소득, 그리고 보험료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회적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한 것으로 보아, ‘노인수당은 수급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라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1문단에서 ‘사회복지 제도는 그 기능과 역할을 달리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급여 전달 형식에 따라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복지서비스 구분된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사회복지 제도의 일반적인 구분 기준은 급여 전달 형식이다.’라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 2문단에서 ‘현재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비해서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 시민들과 관련된 기업에 보험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법의 제정을 통해 사회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사회보험 제도는 현재 대부분의 복지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중심 화제 비교하여 이해하기

3문단에서 사회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수혜의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권리의 주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부분으로 보아, ‘공공부조

(㉠)는 사회수당(㉡)과 달리 권리적 성격보다 수혜적 성격이 강하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① 2문단에서 '공공부조는 '국가'가 최저생계가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생계비, 생필품 혹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은 ㉡과 달리 연령을 기준으로 그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9.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 이해하기

이 글에서 사회복지의 대상이었던 수혜자들이 <보기>의 사회적 기업 같은 곳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 주체가 일정 부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양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 주체가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0.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의무를 지지 않는다.'에서 사용된 '지다'와 '책임을 지어 합니다.'에서 사용된 '지다'는 모두 '책임이나 의무를 맡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①과 ②의 '지다'는 '무엇을 뒤쫓아 두다'의 의미이다.
 ③과 ④의 '지다'는 '물건을 짊어서 등에 엮다'의 의미이다.

[고전소설]

[31~33] <출전> 작자 미상, 『금무태자전(金牛太子傳)』

31.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작품에서는 '금송아지'가 말을 하고 짐으로 만든 북을 쳐서 소리를 내는 등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전기적 요소를 사용하여 작품에 신비감을 조성하고 있다.
 ① 이 작품에서는 대화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은 제시되지 않았다.

32. [출제의도] 중심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공주'의 꿈속에서 '금신'이 '공주'의 베필이 '질북'을 쳐 소리를 내는 사람이나 짐승이라고 제시하였고, '금송아지'가 그 '질북'을 쳐 소리를 내었다. '공주'는 꿈의 제시에 따라 '금송아지'가 하늘이 정한 베필이라 생각하여 '금송아지'를 공주궁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 보아 '질북'은 '금송아지'와 '공주'의 결연을 매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공간의 이동에 따른 사건 파악하기

'공간II'에서 '사람들'은 '금송아지'가 '질북'을 쳐 소리를 울리자 놀랐고, 값을 따지지 않고 '금송아지'를 사려 하였다. 또한 '공주'는 북 소리를 듣고 꿈의 제시에 대해 혼자 생각하였을 뿐, 이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사람들'이 '공주'의 이야기를 듣고 '금송아지'의 내력을 알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고전시가]

[34~35] <출전> 권구, 『병산육곡(屏山六曲)』

34.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작품은 화자가 현재 자신이 처한 공간인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는 삶을 노래한 작품으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① 제1수의 '부귀(富貴)라 구(求)치 말고 빈천(貧賤)이라 염(厭)치 말아', 제5수의 '저 가막이 쫓지 말아 이 가막이 쫓지 말아' 등에서 대구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② 제4수에서 '공산', '담', '두견', '낙화', '백조' 등의 자연물을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④ 제4수의 '두견'은 의지할 곳 없는 화자의 슬픔과 외로움이, '백조'는 한스럽고 서

러운 화자의 심정이 투영된 소재로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제4수의 '낙화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 하리', 제6수의 '서산(西山)에 해 저 간다 고기 빅 쫓던 말' 등에서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35. [출제의도] 시어들을 연관 지어 감상하기

<제4수>에서 화자가 '두견'을 부를 때의 심리는 의지할 곳 없고 외로운 '두견'에 대한 동일시와 연민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제5수>에서 화자는 '가막이'에 대해 '쫓지' 말고 '쫓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가막이'에 대해 부정적인 심리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두견'을 부를 때의 화자의 심리와 '가막이'에 대한 화자의 심리가 유사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제1수>에서 화자는 '망기(忘機)'하겠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고 살아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2수>의 '어조생애'는 물고기를 낚으며 살아가는 삶으로, '백구'와 벗하며 '산' 소식과 단절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속세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삶으로, '망기'에 대한 바람이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제2수>에서 화자는 '세간 소식(世間消息)' 나란 물나 하노라.'라고 하여 '세간 소식'과 단절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제4수>의 '낙화광풍'은 '꽃잎이 떨어지도록 미친 듯이 부는 바람'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혼탁하고 험난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간 소식'과 단절하려는 화자의 태도는 '낙화광풍'으로 비유된 상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제3수>의 '보리밥'과 '과 생채'는 소박한 음식으로, 이를 '양' 맞추어 먹는 모습은 부귀를 추구하지 않고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리밥'과 '과 생채'를 '양' 맞추어 먹는 모습을 <제1수>의 '부귀'를 구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제6수>에서 화자는 '어촌(漁村)이 무릉(武陵)인가 하노라.'라고 하여 화자가 처한 현실적 공간을 이상적 공간인 '무릉'으로 인식할 정도로 현재의 공간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즉 '부귀'와는 동떨어진 '어촌'에서의 '빈천'한 삶도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화자의 만족감은 <제1수>에서 화자가 '빈천'에 대해 '염(厭)치 말아'라고 말함으로써, '빈천'을 싫어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소설]

[36~39] <출전> 문순태, 『말하는 돌』

36.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이 작품은 전쟁의 와중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부친에 대한 한을 지닌 인물인 '나'의 심정 변화를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즉, '나'가 한의 대상인 '마을사람들'에게 이장 일을 시킴으로써 일종의 정신적 복수를 하려 했으나, 이장 일이 끝난 후에는 결국 이러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의 역사적 비극으로 인해 만들어진 한의 해소와 화해의 지향이라는 주제의식이 드러나는 것이다.
 ① 제시된 부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역전된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사건이 순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② 이 글에 제시된 부분에서는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성격을 구체화하는 서술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③ 이 작품은 주인공인 '나'의 시각을 통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 ④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사건을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특정한 사건과 관련하여 인물 이해하기

'네 사람'과 '부면장네 아들'은 돈을 받고 이장 일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양장서 이장 일을 주도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장돌식'이 '나'

의 부탁에 따라 인부를 부리는 것으로 볼 때, '장돌식'이 '나'와 협력하여 이장 일을 주도하는 인물에 가깝다.

① '나'는 '네 사람'과 '부면장네 아들'을 이장 일에 참여시킴으로써 억울하게 죽은 부친의 한을 풀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장 일이 끝난 후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② '나'가 이장 일을 끝낸 후에야 계획대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는 점에서, '네 사람'과 '부면장네 아들'은 이장 일이 끝나기 전까지 '나'의 신분을 알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④ '네 사람'과 '부면장네 아들'은 돈을 받는 대가로 이장 일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장돌식'은 돈이 아닌 친구에 대한 우정으로 이장 일에 참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⑤ 이장 일이 끝난 후 '장돌식'이 '나'에게 '이제야 한이 풀리는가?'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장돌식'은 '나'가 이장 일을 통해 이루어 했던 의도를 짐작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38. [출제의도] 작자의 작품 경향을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나'는 어린 시절 전쟁의 와중에서 부친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한을 간직한 인물이다. '나'가 고향을 떠난 지 30년 만에 돌아와 '마을사람들'을 부친의 돌무덤을 이장하는 일에 참여시킨 것도 머슴이었던 아버지가 당했던 설움과 억울하게 죽어갔던 한을 풀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나'가 한을 맺게 한 당사자로서 '마을사람들'에게 화해의 몸짓을 보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부친의 비극적 죽음 이후 고향 마을을 떠났고, 30년이 지나서 그 한을 풀기 위해 고향에 돌아왔다는 점을 볼 때 '나'가 지닌 한이 이 작품에서 탈향과 귀향의 동기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② '황바우'가 전쟁의 와중에서 죄 없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비극적 운명은 우리 역사의 아픔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④ '나'는 한을 풀기 위해 고향에 돌아와 '마을사람들'을 이장 일에 참여시키는데, 이장 일이 끝나자 오히려 자신의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큰 돈을 간직함으로써 '마을사람들'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나'와 '마을사람들'의 회에는 '나'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려는 작가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겠다. ⑤ '마을사람들'이 '나'의 신분을 알고서도 별다른 죄스러움이나 위축감 따위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으로 볼 때, '마을사람들'은 과거 전쟁의 와중에서 서로에게 의도하지 않은 상처를 주었던 아픔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고 하겠다.

39. [출제의도] 소재에 담긴 의미 파악하기

'돌무덤'은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음을 당한 후, 어린 내가 벗 '장돌식'과 함께 만든 것이다. 즉, 돌무덤은 부친의 비극적인 죽음과 관련된 한과 아픔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돌무덤'이 '나'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자극하는 매개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전쟁의 와중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부친의 '유골'은 부친의 죽음 이후 30년 동안 '나'가 지닌 한의 근원이 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② '나'가 자신의 부친을 소처럼 부리고 개처럼 천대하던 주인인 아들들로 하여금 부친의 무덤에 덮을 '똥장'을 떠 오도록 했다는 점에서, '똥장'은 '나'에게 한풀이의 수단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부친이 부면장 맥의 머슴으로서 천대를 받다가 억울하게 죽었음을 고려할 때, '큰 묘등'은 '나'의 부친의 삶에 대한 보상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나'가 '돌'에 아버지의 혼, '장돌식'과의 우정, 월곡리 마을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말하는 점에서, '돌'은 '나'가 오히려 잊지 않을 만한 가치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시]

[40~42] <출전> 박두진, 『해』, 나희덕, 『어떤 출토(出土)』

40. [출제의도] 작품들 간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맑얏게 씻은 얼굴', '애뵤 얼굴', '늬가사 오면', '너를 만나면' 등을 통해 자연물인 '해'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긍정적인 세계가 오기를 바라는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흙 속에 처박힌 달디단 그녀의 젖을 온갖 벌레들이 오글오글', '그녀는 젖을 다 비우고' 등을 통해 자연물인 '호박'에 인격을 부여하여 희생의 숭고함이라는 시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41.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작품 감상하기

'해'는 작가가 지향하는 세계로 향하게 하는 긍정적인 매개의 역할을 한다. 시에서 '눈물 같은 골짜기'와 '아무도 없는 뜰'은 해가 없는 부정적인 공간들이다. 때문에 해가 이러한 부정적인 공간들을 매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시적 상황 파악하기

'불꽃'은 벌레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호박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때문에 '불꽃'이 '호박'의 강렬한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호박은 온데간데 없다'와 '흙 속에 갇아둔 지 오래다'로 보아, '불꽃'이 화자에게 삶의 의지를 부여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① 호박을 '뿔뿔의 수확'이라는 획득할 수 있는 존재로 본 것으로 보아, 호박을 물질적 측면에서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벌레들이 호박을 먹고 있는 모습을 '은밀한 의식'으로 표현한 것을 통해 호박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물질적인 존재에서 희생정신을 지닌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③ '호박'의 상황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 '고춧대'를 덮어주는 행위를 통해 화자가 '호박'을 의미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호박'의 씨를, '둥근 사리들'이라는 고귀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 '호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시나리오]

[43~45] <출전> 윤선주 각본, 『불멸의 이순신』

43.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제시된 부분의 갈등은 이순신, 그리고 이순신의 충심을 믿는 사람들과 이순신의 충심을 의심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다. #41의 선조와 류성룡의 대화에서 그런 의심과 오해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이 글에서 효과음이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이를 통해 극적 긴장감을 완화하고 있지는 않다. ③ 작품에서 공간은 선전관의 처소-바닷가 일각-행궁 일각-통제사 집무실로 바뀌고 있으나,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이 글에 제시된 부분에서는 내적 독백이 연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⑤ '면사첩'이라는 특정한 소품을 활용하고 있으나 그것이 선조와 이순신의 지위가 역전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44. [출제의도] 등장인물에 대해 이해하기

#41에서 선조는 전쟁 과정에서 왜소해진 자신과 격상된 이순신의 위상으로 인해 왕권이 흔들리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순신이 조선을 구하고 왕실의 위엄을 훼손하지 않을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선조는 나라와 왕실의 안위를 걱정할 뿐 이순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으므로, 선조가 이순신의 안위를 걱

정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5. [출제의도] 촬영 및 연출 기법 파악하기

일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각도로 촬영하게 되면 대상이 왜소해지고 위축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그런데 #42에서 이순신은 내면적 결의를 통해 면사첩을 불태우고 있으므로, 이러한 이순신의 모습을 내려다보는 각도로 촬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면사첩을 꺼내보는 이순신, 천천히 넘기는 이순신, 그 위로 효과음(E)으로 삽입된 선조의 목소리'에서 확인된다. ④ #42에서 이순신이 면사첩을 꺼내보는 모습과 면사첩의 '免死(면사)'라는 두 글자가 이어서 나오고 있는 장면에서 확인된다. ⑤ '免死(면사)' 두 글자. 그 위로 창검을 앞세우고 바람처럼 달려오는 의금부 군사들, 수레에 감혀 칼을 쓰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진다.'에서 확인된다.

이 면은 여백입니다.